“역사 지우는 아베, 한일 갈등 야기”

특별인터뷰 **이치노헤 쇼고 스님**(일본 조동종 운쇼지 주지)

韓 불매운동에 日 놀란 상황
아베 정부 한일협정 거론하며
“개인청구” 불인정 잘못된 행동
지난 1992년 야나이 정부위원
“韓 개인청구권 남아” 밝히기도

“일본, 한국 입장서 사과했나”
상대방 이해, ‘자비희사’ 발로
韓日불교 ‘자비’로 해결 나서야



이치노헤 쇼고(一戸彰晃) 스님은 … 1949년 아오모리현 출생으로 고마자와대학(駒澤大學) 대학원 영미문학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현재 아오모리현(青森縣) 운쇼지(雲祥寺) 주지이자 군산 동국사를 지원하는 모임(동지회) 회장이다. 이밖에도 원죄 ‘사야마(狭山) 사건을 생각하는 시민집회’ 실행위원, ‘인권 · 평화 · 환경’ 운동단체 ‘촉광(燭光)’의 이사장이기도 하다. 저서로는 ‘조동종의 전쟁(2010)’, ‘조동종은 조선에서 무엇을 했나(2012)’ 등이 있다.

“‘미래 지향’이라는 미명 아래 ‘역사 지우기’ 작업에 매몰된 아베 정부가 현재의 한일 갈등을 야기했습니다. 아베 정부는 절대 이 갈등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E-메일을 통해 전해지는 이치노헤 쇼고 스님(一戸彰晃 · 일본 운쇼지 주지)의 목소리는 여전히 결연했다. 2015년 광복 70주년을 맞아 진행했던 서면 인터뷰 당시 “일본은 과거 한국과 주변국가에 많은 잘못을 했고, 이를 참회해야한다”고 강조했던 입장은 지금도 전혀 변하지 않았다.

일본 조동종 소속 이치노헤 스님은 한국에는 〈조선침략참회기-일본 조동동은 조선에서 무엇을 했나〉의 저자이자 군산 동국사 참회비를 세운 ‘동국사를 지원하는 모임’을 이끄는 친한파 스님으로 잘 알려져 있다.

우선, 이치노헤 스님은 유례없는 갈등 상황과 한국의 반발에 대해 일본이 많이 놀라고 있는 상황임을 전했다.

“한국에서는 시민운동 형태로 다양한 일본 제품 불매운동들이 이뤄지고 있지만, 일본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일본의 한류 붐 세대는 정치와 민간 교류는 별개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의 ‘NO JAPAN’ · ‘가지 않습니다. 사지 않습니다’라는 구호는 일본인들에게는 큰 충격입니다.”

현재 갈등 상황을 살펴보면 그 기저에는 위안부와 강제 징용 문제가 있다. 최근 한국의 대법원은 강제 징용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판결을 내렸다. 1965년 한일협정으로 국가 간 청구는 끝났지만, 개인 간의 배상 청구는 끝나지 않았음을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일본은 1965년 협정은 유효하며 일본 기업에 대한 한국 법원의 배상청구 인정은 맞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이치노헤 스님은 ‘개인청구권’은 남아있다고 한국 법원의 손을 들었다. 이는 과거 일본 정부도 인정한 사실이라는 게 스님의 주장이다. 이치노헤 스님에 따르면 1992년 2월 26일 일본 중의원 외무위원회에서 도이(土井) 의원의 질의에 당시 야나이(柳井) 정부위원은 “한국의 개인청구권은 남아있다”고 밝혔다. 과거에 인정했던 사실을 지금의 아베 정부가 모를 리 없다는 것이다.

“아베 정부가 1965년 한일협정을 거론하며 ‘개인청구권’을 지우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행동입니다. 한국인 강제징용자들에게 ‘개인청구권’은 남아있고, 이는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일본인들은 이 같은 강제징용자들의 ‘개인청구권’이 남았다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이 중대한 사실을 일본 언론은 전혀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해결되지 못한 과거사 문제는 경제 전쟁으로 확전됐다. 한일갈등 요소 중 하나인 ‘사과’ 문제에 대해서도 이치노헤 스님은 명확하다. 일본은 진정한 사과를 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일본은 ‘몇 번을 더 사과해야 하는가’라고 하고, 한국은 반대로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합니다. 에도시대 유학자인 아메노모리 호슈(雨森芳洲, 1668~1755)는 ‘타국과 교류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사정과 인정(人精)을 이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지금까지 일본이 정말 한국의 입장에서 반성했는가는 의문이 듭니다. 일본은 한국의 사정과 인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첨예한 한일갈등에서 양국 불교의 역할이 중요함을 이치노헤 스님은 강조했다. 특히 ‘자비희사’ 정신을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을 양국 불교계에 주문했다.

“불교는 항상 상대의 입장에 서서 ‘자비’를 실천하는 종교입니다. 진실한 불자는 모든 일을 불교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마음의 근본은 사무량심 즉, ‘자비’와 ‘희사’에 있습니다. 대승불교는 모두 이 정신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한일 불교는 ‘자비희사’ 정신을 바탕으로 실천사업을 전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터뷰 말미, 이치노헤 스님은 “이번 소동은 오직 아베 정권의 보복으로부터 시작됐다”며 “일본인이자 불자로서 매우 유감”이라며 재차 사과의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당나라 시대 선사인 석두희천(石頭希遷)의 ‘참동계(參同契)’ 한 구절을 소개했다. ‘참동계’는 조동종의 요점을 5언 44구 220자로 드러낸 짧은 글로 조화와 융합을 강조하고 있다. ‘만물은 애초부터 공능이 있어 본래작용과 용처가 있으니(萬物自有功當言用及處) 상자와 뚜껑이 들어맞고 화살과 칼끝이 서로 맞대고 있는 것과 같네.(事存函蓋合 理應箭鋒拄)’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번역도움=종걸 스님(군산 동국사 주지)

전국 천태불자들 재가 하안거 결제

8월 10일 천태종 구인사서 1500여 불자 동참

전국 천태불자들이 천태종 수행종풍인 주경야선(晝耕夜禪)을 실천하고자 여름 한 달 안거에 들어갔다.

천태종(총무원장 문덕)은 8월 10일 총본산 단양 구인사 광명전 5층에서 종정 도용 스님을 비롯한 종단 스님과 재가불자 안거 동참자 등 사부대중 1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17회 기해년 하안거 결제식’을 봉행했다.

이날 종정 도용 스님은 결제법어를 통해 “부처님 법이 필요한 시대,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은 대승의 진리와 마음자리를 잘 닦아야 한다”면서 “첫 발심도 중요하지만 중간과 끝도 중요하다. 법을 닦지 않으면 미혹의 세계를 벗어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도용 스님은 이어 “여러분이 기도하고, 관음정진하는 바로 그 자리가 불국정토요, 극락이요, 부처님 세계”라며 “안거 기간 중 기도 정진 열심히 하길 바라고, 각자의 지혜를 맑게 해 성불하길 기원한다”고 당부했다.

총무원장 문덕 스님은 결제사에서 “종단의 수행풍토를 가장 잘 보여주는 신도 안거제도에 수많은 불자님들이 동참해 일심청정을 이루고, 처처연화의 결실을 맺기 위해 정진을 거듭하고 있다”며 “우리는 안거를 통해 반복되는 일상을 벗어나 고요한 산사에서 내면을 되돌아보는 수행과 통찰의 시간을 보낸다. 이는 고질적이고 습관적인 업을 바꾸는 것으로 업장을 소멸시키는 일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문덕 스님은 또 “안거 수행은 우리에게 많은 인내를 요구한다. 하지만 우리가 얻게 될 기쁨과 보람은 여러분들이 흘린 땀방울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해 주리라 확신한다”며 “결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안거 수행을 통해 업장을 녹이고, 인생의 나침반을 바로 세우는 계기를 만들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기해년 구인사 하안거에는 1,000여 명이 동참했다. **윤호섭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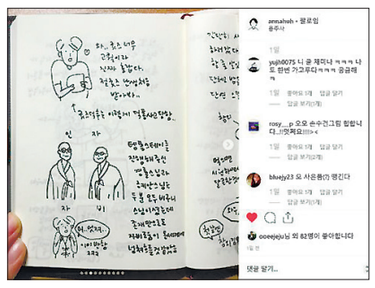
템플스테이 경험한 작가들 반응은?

만화로 표현한 포교원
작가템플스테이 후기 눈길

“저의 첫 템플스테이는 일상의 고민을 잊고 편안히 하루 여행을 다녀온 기분이었어요. 새로운 경험과 좋은 사람들과의 인연이 짧은시간이지만 큰 배움으로 다가왔습니다. 앞으로도 종종 템플스테이를 하고 싶어요. 한결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2018년 문화콘텐츠 분야 종사자 템플스테이를 통해 불교문화 홍보에 나선 조계종 포교원의 활동이 작은 결실을 맺고 있다. 만화 후기부터 그림 후기까지 다양한 작가들의 후기가 눈길을 끈다.

올해 7월 6~7일 조계종 포교원이 일러스트 및 동화작가를 대상으로 개최한 용주사 템플스테이에 참가한 허안나 작가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만화로 된 후기를 올렸다. ‘절 굿즈 난생처음 받아본다’ ‘템플스테이 스님들의 존재만으로 자비로움이 온 세계에 넘쳐 흐를 것 같다. 머..멋져..’ 등 재치있는 그림으로 SNS상에서 템플스테이 체험 후기를 남겼다.



이와 함께 박수민 작가도 최근 인스타그램에 자신이 그린 연꽃 그림과 함께 ‘1박 2일간 짧은 인연이고 경험이지만 얻어간게 많은 소중한 시간이었다. 불교와 한국문화 소재로 종종 그림을 그려보이겠다’고 각오를 남겼다.

SNS상 후기인 만큼 네티즌들의 반응도 이어졌다. 허안나 작가의 인스타그램만 해도 yujh0075 등 네티즌들이 ‘나도 한번 가고푸다’와 같은 댓글을 남겼고, 82명이 ‘좋아합니다’를 눌러 호감을 표시했다.

조계종 포교원은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웹툰, 동화 작가 및 일러스트 작가, 소설가 등을 대상으로 템플스테이를 개최하고 있다. 문화콘텐츠를 만드는 크리에이터들에게 불교문화 기반을 알리기 위함이다.

7월 용주사 템플스테이에 이어 8월 31일부터 9월 1일에는 ‘얼-차려! 꿈-깨라’를 주제로 웹툰 · 만화작가들과 함께 강화 전등사에서 작가 템플스테이를 개최한다. 템플스테이 내용은 작가만을 위한 특별한 과정이 담겨있다. 사찰문화체험, 차담, 명상 등 기본 프로그램과 함께 불교문화를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는 인문강연이 진행된다.

조계종 포교원 측은 “미디어 발달에 따라 불교콘텐츠 확대가 중요한 시기”라며 “작가템플스테이를 비롯해 소양자료 제공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에서의 불교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올해의 포교사에 ‘심재덕 포교사’

조계종 포교사단은 8월 24일 논산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에서 제17회 팔재계수계법회를 개최한다.

이날 입재식에서는 단기입장을 시작으로 삼귀의와 반야심경 봉독, 포교사의노래 합창과 포상 및 축가 공연이 진행되며 제13기 전문포교사 및 제24기 일반포교사 품수식도 진행된다. 또 연수특강도 이어진다.

식전행사로는 박은주 포교사의 진행 하에 광주전남지역단의 찬불가 및 플룻연주, 대구지역단의 고전무용 ‘포교사 연꽃이 피다’, 충북지역단의 기타연주, 대전충남지역단의 국악공연, 전북지역단의 ‘운수대통’ 춤 공연이 펼쳐진다.

한편, 이번 팔재계수계법회 포상자로는 총무원장상에 부산지역단 일행 심재덕 포교사, 포교원장상에 대구 혜림 장건환 포교사, 대전 지혜지 황경옥 포교사, 충북 무주 심재훈 포교사, 인천 일심화 곽순선 포교사 등이 선정됐다. **노덕현 기자**

오대산 월정사 부설 | 불교한문 전문교육기관

탄허강숙

2019년도 2학기 강의 안내

탄허강숙(呑虛講塾)은 탄허(呑虛) 큰스님의 인재양성과 교육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하기 위하여 오대산 월정사에서 설립한 불교 한문 학당입니다. 2019년 2학기(9월~12월, 4개월 약 16주) 탄허강숙에서는 4개 과목이 강의 됩니다. 매주 월요일에는 동국대 교수를 역임하신 정성본 스님이 [대승기신론]을 강의하며, 화요일에는 한국고전번역원 이상하 교수님이 [선문촬요]를 강의하며, 수요일에는 동국대 박사인 선암 스님이 [능엄경]을 강의하며, 목요일에는 한국학 중앙연구원 박사인 문광 스님이 [선문염송]을 강의합니다.

학문, 공부를 하지 않으면 게을러지고 무지해 지고 허영, 사치, 교만, 금전만능주의 등 천박한 가치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고타마 붓다께서는 “방일은 죽음의 길이고 불방일은 불사(不死)의 길이다”라고 말씀하셨고, 탄허큰스님 께서는 “법당 10채 짓는 것보다 인재 한 명을 기르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탄허강숙은 사회적, 불교적 인격을 완성하는 수행과 지성(知性)의 공간입니다. 함께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2019년도 2학기 강의 일정 및 장소

- 일 시 • 2019년 9월 2일(월) ~ 12월 19일(목) • 저녁 7시 ~ 9시
- 방 식 원전 중심 강의 (초심자도 누구나 수강 가능)
- 장 소 • 서울 종로구 삼봉로 81 두산위브 파빌리온 634호 • 지하철 ❶호선 종각역, ❸호선 안국역, ❺호선 광화문역 5분 거리
- 문 의 02-732-2403~4 또는 010-3731-1586, 010-5226-2149

2019년 2학기 개설 강좌

요일	강좌 및 원전명	강사	강사소개
월	대승기신론 (大乘起信論)	정성본 스님	전 동국대학교 교수. 일본 고마자와대학 박사. 〈중국선종의 성립사 연구〉 〈임제록(역주)〉 〈무문관(역주)〉 〈벽암록(역주)〉 〈돈황본 육조단경(역주)〉 등
화	선문촬요 (禪門撮要)	이상하 교수	고려대학교 박사. 현 한국고전번역원(전 민추) 교수. 〈십지경론〉 〈십송률〉 〈경허집〉 〈월사집〉 등 다수의 번역이 있음
수	능엄경 (楞嚴經)	선 암 스님	능엄학림 졸업(월운스님 전강제자). 동국대불교학술원 전임연구원. 동국대 대학원 불교융합학과 박사(한문불전 번역 전공). 불교한문학 박사. 동국대 및 중앙승가대 강사
목	선문염송 (禪門拈頌)	문 광 스님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철학과 박사. (현)조계종 교육아사리, 동국대 불교학술원 외래교수, 한국불교학회 학술이사

2학기는 1학기와 같으며, 교재도 같은 교재입니다.
수료증은 1, 2학기 통산 출석 일수 3분의 2 이상 출석자에게만 수료증을 수여합니다.

지원서 제출 및 등록

- 접수방법 • 이메일 : tanheogangsuk@naver.com • 전화 : 02)732-2403~4 또는 010-3731-1586
- 수강료 • 과목당 1학기(4개월) 20만원(일시불) • 전과목 수강할 경우 55만원(4과목 4개월 일시불)
- 수강인원 • 과목당 25~30명(연령, 자격 제한 없음) • 선착순 마감
- 입금계좌 • 국민은행 023502-04-145908, 예금주: 윤재승 • 수강료 입금시 문자 요망. 교재비는 별도(3만원 이하) • 교재는 개강일 배포